

김하늘 “‘18 어게인’ 따뜻한 감성 마음에 들었다”

JTBC 새 월화드라마...내달 7일 첫방송

쌍둥이남매 엄마·아나운서 지망생 맡아

“극중 ‘정다정’ 캐릭터 진짜 믿는”...‘애정’

배우 김하늘이 JTBC 새 월화드라마 ‘18 어게인’을 선택한 이유로 “대본을 너무 재미있게 봤다”며 “그동안 했던 작품 중 따뜻함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7일 첫 방송되는 ‘18 어게인’ 측은 19일 김하늘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18 어게인’은 이혼 직전에 18년 전 리즈시절로 돌아간 남편이 야기다.

김하늘은 열여덟 쌍둥이 남매의 엄마이자 늦깎이 아나운서 지망생인 위경맘들의 워너비 ‘정다정’ 역할을 맡았다.

김하늘은 “(대본을) 뒤가 너무 궁금해서 쉬지 않고 본 것 같다”며 “스토리에 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다. 극 중 자신이 맡게 된 ‘정다정’ 캐릭터에 대해서는 “진짜 믿는”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하늘은 “저도 어찌 보면 위경맘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어쩔 이렇게 대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당차게 열심히 살고 매력이 넘친다”며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친구”라고 말했다.

늦깎이 아나운서 지망생 캐릭터인 만큼 TV에 나오는 모든 아나운서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하늘은 “다정이는 스포츠 리포터의 모습도 보여줘야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을 위주로 봤던 것 같다”며 “선생님께도 열심히 배워서 연습했다”고 말했다.

촬영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어려진 남편과 처음 마주하는 신이 재미있었다”며 “그 신을 좀 코믹하게 즐겁게 찍었다”고 회상했다.

극 중 로맨스 호흡을 보여줄 윤상현, 이도현, 위하준 배우도 언급했다.

윤상현은 남편 ‘홍대영’ 역을, 이도현은 18세 리즈시절로 돌아가 ‘고우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는 남편 ‘홍대영’ 역을 맡았다. 위하준은 야구선수 ‘예지훈’ 역을 연기한다.

김하늘은 “윤상현 배우는 우선 눈빛이 너무 선하고 따뜻하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감정연기가 너무 잘 나온다”며 “상대방을 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이도현 배우는 신인이지만 눈에 힘이 있고 눈빛과 목소리가 매력 있어서 나이 차이가 나지만 멜로신을 자연스럽게 잘 찍었던 것 같다”며 “위하준 배우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잘해서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느낌이 잘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18 어게인’은 드라마 ‘고

백부부’로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 받은 하병훈 감독이 JTBC 이적 후 처음으로 연출하는 드라마다. 김하늘은 “하병훈 감독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 주고 응원해주신다”며 “그래서 다정이가 더욱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고 노력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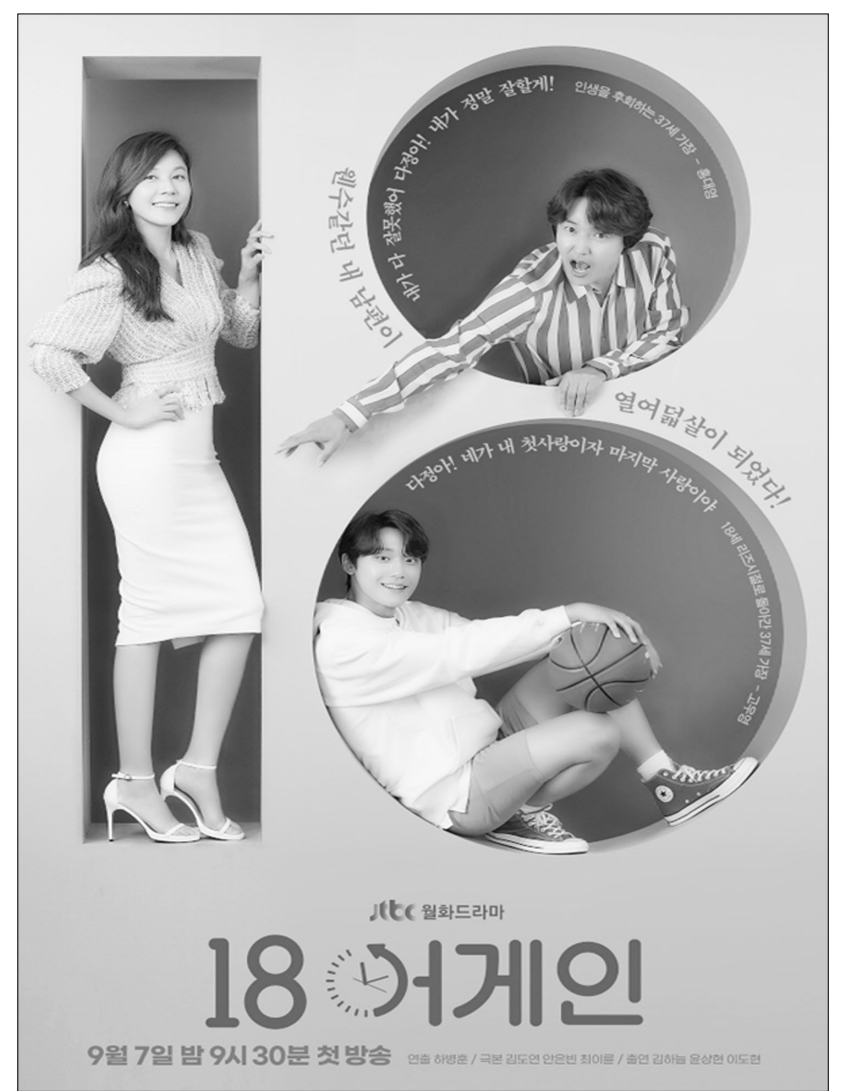
드라마 제목처럼 실제 18세의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로 ‘배낭여행’을 꼽았다.

김하늘은 “세계를 일주하는 배낭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며 “정말 많이 걷고 많이 보고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늘은 끝으로 “판타지가 섞인 드라마이지만, 제가 대본에 깊이 끌렸던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웃고, 울고, 행복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며 “여운이 남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빨리 방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분들과 ‘18 어게인’으로 소통하고 공감도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비밀의 숲2’ 치밀하게 빠져든다...포문 연 3개 이야기

내부 비밀 추적극의 시작 알려



tvN 주말극 ‘비밀의 숲2’가 치밀한 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통영 사고부터 황시목(조승우)과 한여진(배두나)의 재회, 그리고 검경협의회 구성까지,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 내부 비밀 추적극의 시작을 알린 이야기를 정리해봤다.

◇통영 사고 → 검경수사권 논쟁의 도화선

안전불감증 커플의 철없는 행동에서 비롯된 나비효과로 대학생 두 명이 의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안통제선을 끊어 놓은 탓에 이를 모르고 바다에 들어갔다 번을 당한 것. 그럼에도 피의자는 “시설물 파손은 인정되나 그 행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다.

문제는 기소부터 불기소 처분까지 단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담당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란 관행 때문이었다.

이는 검찰로부터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수사구조혁신단의 단장 최빛(전혜진)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기자들 앞에서 “이게 다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 앞에서 내부 비밀 추적극의 시작을 알린 이야기를 정리해봤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 우발적으로 발생한 통영 사고가 검경수사권 논쟁의 도화선이 된 순간이었다.

◇대척점에서 서게 된 조승우-배두나 → 최무성-전혜진 등장

통영에서의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을 앞두고 있던 황시목(조승우). 그러나 통영 사고 처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검사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 대표 우태하(최무성)는 그를 ‘검경협의회’ 구성원으로 호출했다.

이로 인해 수사구조혁신단 소속 한여진(배두나)과는 자연스럽게 대척점에 서게 된 상황. 지난 시즌 검경 공조의 정서를 보여줬던 두 사람이었기에 앞으로 이들의

관계 변화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다. 이들을 둘러싼 검경의 대표 우태하와 최빛의 등장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다.

단 2회의 방송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인식이 최악인 상황에서 검찰 대표로 수사권 사수에 나선 검사 우태하와 수사권 조정에 유리한 국면을 맞이한 경찰 대표 최빛의 수싸움이 팽팽하게 드러났다.

얼마 남지 않은 검경협의회가 시작된 이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준혁이 가져온 세 개의 파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온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등장한 검사 서동재(이준혁). 그는 “경찰 비리의 끝판”으로 의심되는 세 개의 사건 보고 파일을 함께, “부장님을 대신해서 카드를 움켜쥐고 패를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우태하를 찾아왔다.

각기 다른 파일 안에는 최빛과 관련된 사건부터, 지구대 자살 사건, 그리고 경찰의 직권남용 사례까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면 국민이 얼마나 억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 관련 정보가 담겨 있었다.

고민 끝에 우태하는 그날 저녁, 황시목과 서동재를 한 자리에 불렀다. “대검으로 가져왔으니, 대검에서 풀어야지”라며 두 검사의 예상치 못한 공조를 암시한 것. 서동재가 가져온 사건이 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악뮤 수현, 디즈니 뮤즈 발탁...‘물란’ 엔딩송 부른다

국내서 내달 10일 개봉

홍성듀오 악동뮤지션의 멤버 수현이 디즈니의 뮤즈가 됐다.

영화 ‘물란’ 측은 19일 ‘물란’의 주제곡인 ‘숨겨진 내 모습(Reflection)’의 국내 공식 커버 송을 부른 아티스트는 수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앤드크레딧 송 3곡 중 하나인 ‘Reflection’은 1998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 중 하나로, 22년만에 실사화 된 영화 ‘물란’에서도 웅장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삽입, 영화 팬들의 향수를 자아낼 예정이다.

수현은 가슴 벅찬 소감을 전했다. 수현은 “제가 드디어 디즈니 러브콜을 받았다”며 “디즈니의 팬으로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은 곡에 참여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물란’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물란이 가족을 위해 여지없이 숨기고

잔인무도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되어 위대한 전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중국 남북조시대 여성 영웅 이야기를 다룬 동명 애니메이션(1998)을 실사로 옮긴 작품으로 중연으로 내세워 흥 제작비만 2억 달러(약 2381억원)가 들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10일 극장 개봉한다.

슈퍼엠 ‘100’, 외신 주목...“3분30초에 1년 에너지”

최초로 온라인 콘서트 열어 증강현실(AR) 선보였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연합 그룹 ‘슈퍼엠(SuperM)’의 신곡 ‘헌드레드(100)’가 주요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19일 SM에 따르면,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100’ 공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슈퍼엠이 새 싱글 ‘100’으로 커

리어의 2번째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100’은 3분 30초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았다”고 호평했다.

이어 “‘100’은 리스너들에게 즉각적으로 활기를 불어 넣는 아드

레날린과 같다. 슈퍼엠은 랩 구절을 프리 코러스로, 그리고 다른 파트의 보컬 구절과 혼합시키는 환상적인 작업으로 노래 전체가 하나의 연속되는 후크처럼 느껴지게 했다. 고맙게도, ‘100’의 비주얼도 노래의 페이스 및 에너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리스너가 단 1초도 놓치지 않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Rolling Stone) 역시 ‘100’에 대해 “웅장한 테크노 스타일의 비트, 스타카토 스타일의 랩과 작 붙는 멜로디가 감사를 공격적이고 쿨한가리는 베이스 라인이 특징인 ‘100’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한 가장 랩을 하는 슈퍼엠의 다재다능함을 폭넓게 보여준다. 이것은 3분 30초 동안 정신없이 최고의 에너지와 재미를 담은 곡”이라고 주목했다.

더불어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Billboard)는 “‘K팝 슈퍼 그룹’ 슈퍼엠 덕분에 여름이 훨씬 뜨거워졌다.”

세븐틴, 일본 인기 이어가...내달 미니2집 ‘24H’ 발매

30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팬미팅 진행



그들 ‘세븐틴’이 내달 9일 일본 두 번째 미니 앨범 ‘24H’를 발매한다.

19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전날 밤 일본 라디오 방송 도쿄 FM

‘스쿨 오브 락(SCHOOL OF LOCK!)’을 통해 신곡 ‘24H’를 선공개했다. ‘24H’는 ‘세븐틴은 언제나 캐럿(팬덤)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다.

이번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 곡 외에도 보컬 유닛의 ‘바람개비’, 퍼포먼스 유닛의 ‘247’, 힙합 유닛의 ‘칠리’ 그리고 오리온 주간 앨범 랭킹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미니 7집 ‘헝가리’의 수록곡 ‘같이 가요’ 일본어로 번안곡이 수록된다.

세븐틴은 올해 들어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 발매한 일본 두 번째 싱글 ‘마이오치루나비라’로 일본 레코드 협회가 발표한 ‘골드 디스크 인증 작품’에서 50만 장 이상의 누적 출하량을 기록하며 더블 플래티넘을 인증받았다.

오리온 상반기 랭킹’의 싱글랭킹에서는 톱 10내 유일한 한국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팬미팅 ‘세븐틴 인 캐럿 랜드’로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